

농촌 교회를 도와야 한다

아시아의 인구 80%가 농촌 인구로 아프리카 다음 가는 농업국들로 구성되어 있다. 2차 대전 후로부터 아시아 신생 국가는 근대화 와 개발이라는 역사적인 과정을 밟고 있을 때 여기서 중대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은 농업만을 위주로 하는 농가들이 도저히 생산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유 중에는 농촌 인구가 아시아에서는 일년에 3백 5십만이 도시로 향해 이주하고 또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사이의 간격이 날로 극심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도 예외일 수가 없다. 농작물의 생산 가격이 자꾸 치솟아 올라가서 아무리 애써 생산해도 농촌의 생활 수준은 도시 생활을 따르기가 요원한 이야기다. 하기야 자유당 시대의 춘곤기 절량 농가가 속출되던 시대에 비하면 오늘의 농촌은 한결 윤택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 문화 발전과 개발에 뒤따르는 인플레이의 악영향을 무방비 상태로 감수하는 층은 농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악조건 밑에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이 연거푸 일어난 수해와 한해의 피해일 것이다. 영세 농가 뿐만 아니라 중농 이상도 이 피해를 면치 못했다. 이러한 농촌의 인위적 자연적 재해의 피해를 교회인들 면할 길이 없다.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농촌 교회 목사의 생활난의 호소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부 도시 교회는 자매 결연으로써 영세 농촌 교회의 재정을 돕고 있지만 그것은 극히 잠정적이며 작은 부분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오늘의 한

국 교회가 정말 백년 대계를 세우고 긴 안목으로 앞을 내다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재정적 자원을 동원해서 농촌 교회 부흥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농촌 교회가 자립하느냐의 여부가 우리 나라 전체 교회의 장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 명약관화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 교회가 농촌 교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는 교회의 역사를 남기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몇가지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이 일을 추진하도록 교회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한국의 기성 교회를 뒷받침하고 있는 막대한 선교부 재산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농촌 부흥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요즘 큰 교파에서는 선교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고 그 첫 조치로서 과거 선교부가 관리 하던 모든 재산을 한국 교회가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한국 교회가 이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든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마는 재산을 이양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다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데 앞으로의 연구 과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선교부가 기독교 학교나 병원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온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 영세 교회에 재정적인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도움이 좀더 효과적으로 쓰여지려면 후진성을 면치 못한 한국의 농촌 부흥과 농촌 교회 활용에 집중적으로 주입해야만 할 것이다. 농촌 문제 해결이 선행하여야만 도시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도시 문제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농촌 인구의 도시 집중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농촌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 이해될 것이다.

다음으로 농촌 교회 지도자들은 과거와 같은 목회 양식을 지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일날 설교나 관혼 상제 주례 같은 것만 돌보던 목회로부터 그 지역의 복지 사업을 치밀히 계획하고 지도하는 목회로 진전하여야 한다. 지역의 공동 사업과 운명에 참여하지 않는 목회는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을 것이다. 농촌 교회 지도자가 고식적인 전통을 깨뜨리고 발 벗고 나설 때, 비로소 한해 수혜의 피해를 받은 농촌에 새 활기를 돋구어 주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의 농촌 교회의 구제책은 먼저 농촌 교회 지도자들 자신의 각성과 주도적인 역할이 선행되어야 할 줄 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각 교단과 선교부는 협력하여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더 근본적인 것은 신학 교육에 있어서 농촌 교회 목회에 뜻을 둔 젊은이들의 교육에 특별한 유의를 하여서 농촌 부흥에 알맞는 지도자 양성을 위해 특별한 교과 과정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근대화는 도시 문화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농촌 교회의 부흥책, 그리고 농촌 교회 지도자들의 정신적인 지도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